

# 희망의 인문학, 가난할 권리

최준영  
(거리의 인문학자, 작가)



## 경력

신춘문예 당선(2000년, 문화일보 시나리오)

경기문화재단 <기전문화예술> 편집주간

성프란시스대학(노숙인 인문학) 교수('05~'07)

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 교수('08~'10)

군포시청 홍보기획팀장('10~'13)

방송, SBS라디오/ 교통방송/ YTN라디오/ MBC/ 국악방송 등에서  
책소개방송 진행

출강,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, 카이스트 경영대학원, 삼성전자,  
동국대CEO인문학,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출강.

현재, 사단법인 인문공동체 책고집 이사장

## 저서

<가난할 권리>(2023)

<결핍의 힘>(2021), <동사의 길>(2018)

<동사의 삶>(2017), <최준영의 책고집>(2015)

<어제 쓴 글이 부끄러워 오늘도 쓴다>(2013)

<결핍을 즐겨라>(2012)

<유쾌한 420자인문학>(2011)

<책이 저를 살렸습니다>(2010)

<행복한 인문학>(2008) 등

## 수상

제29회 독서문화상(독서문화 진흥 공헌자) 국무총리 표창

제25회 교보교육대상 '참사람람육성'부문 대상 수상

# 내 친구, 성민이 이야기 '학교, 불편을 체화하는 곳'

but

한국인의 관용성, 52개국 중 52위

▶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52개 국가의 관용성 수준을 평가한 자료:

“자녀에게 관용성을 가르쳐야 한다”는 응답은 한국에서 45.3 퍼센트로 52 위, 즉 꼴찌.

‘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자녀에게 가르치겠다’는 응답이 52개 국가 중 꼴찌라는 것.

▶ 자녀에게 관용성을 가르치겠다는 한국인의 비율은 1 인당 GDP 1,807 달러인 르완다(56.4%)보다도 낮았음.

# 시민인문학의 탄생(1)

## - 시민 인문학의 탄생.

1995년, 얼 쇼리스 **클레멘트코스** 설립

2005년, **성프란시스대학**(국내 최초 노숙인 인문학)

2006년, 자활인문학 시작(관악인문대학, 노원성프란시스대학 등)

## - 시민인문학의 정착.

2007년, **교도소인문학**(의정부교도소, 안양교도소 등)

2008년, 서울형 시민인문학 출범.

# 시민인문학의 탄생(2)

- 인문학의 열기 전국화.  
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시민인문학 강좌 개설 붐.  
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인문학 열풍.
- 미디어와 만난 인문학  
인문학의 상품화, 대량 유통.  
인문학 이벤트
- 인문독서공동체의 출현  
  
2010년 이후 살롱문화의 출현  
인문독서공동체(승례문학당, 트레바리)  
  
cf) 2018년 인문독서공동체 '책고집' 탄생^^

# 인문학이란?

사람을 알기 위한 공부

# 자활인문학

자활센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‘루저’ 로만 보였어요.

미웠고 싫었어요.

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.

실은 나 자신이 루저였고, 나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걸.

이제 동료들 미워하지 않아요.

매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

이제는 알겠어요.”

-- 23년, 성동자활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한 여성이 해준 말.

노숙인,  
사람이 없는 사람

but,  
사람이다.

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이 들려주는  
가난한 사람들의  
가난하지 않은 이야기

최준영 지음  
책고래 | 16,000원

문학평론가  
신형철  
추천!

성균관대학교  
김범준 교수  
추천!

소설가  
반수연  
추천!

책고래

# “결핍”의 존재

근원적 결핍들 : 죽음과 미성숙한 탄생  
→ 성찰과 교육.

# 사회<sup>의 존재</sup>

인간 = 人 + 間

인문학 = '관계(사이)'의 학문

'사이'의 의미

Inter

관계

공동체

노숙인 인문학에서 희망찾기(1)

16년 만에 사랑을 고백하다.

(성프란시스대학 3기 졸업생)

## 노숙인 인문학에서 희망찾기(2)

**“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 
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.”**

-- 빅터 프랭클 <죽음의 수용소에서>

(성프란시스대학 1기 졸업생 이 씨의 용기)

# '관용'의 존재

“존중하십시오, 그리하여 존중하게 하시오”  
(respectez, et faies respecter)

- 프랑스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'잔디를 밟지 말라'는 뜻말.

\* 퐁레랑스 = 먼저 존중함으로써 비로소 존중 받는 것.

yyagy@naver.com

010-5418-6558